

전북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경제 현상 유지”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고도분석 장비 활용 사전 수요조사 실시

고환율·불확실성 장기화에 ‘안정 경영’ 선호… 환율 안정·투자·소비 활성화 정책 요구

전북지역 기업들이 2026년에도 경기 회복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전략 역시 보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회장 김정태)가 도내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기업에 바라본 2026년 경영·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2%는 2026년 한국 경제가 ‘2025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1.3%로, ‘개선될 것’(28.5%)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신중한 전망 기조가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은 기업 경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고환율이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이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북지역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과 판매를 내수 중심으로 하고 있어 환율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6년 경영 계획의 핵심 기조로는 ‘안정(유지) 경영’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반면 ‘확장(성장) 경영’은 21.8%, ‘축소 경영’은 10.9%에 그쳐, 대부분의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꼽은 2026년 경제 성장의 긍정 요인으로는 ‘달러 인하 및 금융 여건 완화’(20.7%)와 ‘국내 기업 투자 확대’(17.1%)가 상위에 올랐다. 반면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성’(22.6%),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21.3%), ‘글로벌 경기 둔화’(17.0%)는 주요 부정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경제 활

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국내 투자 촉진’(24.4%)과 ‘소비 활성화’(21.7%), ‘환율 안정화 정책’(17.6%)을 꼽았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투자 환경 개선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 회장은 “고환율과 비용 부담,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반등의 해라기보다 정체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과 금융 여건 개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부의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고도분석 장비 활용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군산대학교가 참여하는 대규모 산·학·연 협력 사업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용 공간(군산시 오식도동 1121)에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고도화를 목표로 분석 기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고도분석 프로세스와 성능 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 완성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도입 예정인 장비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장비 구축과 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셀·모듈·팩 분야 기업을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조사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2주간이다.

조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며,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 기업 대상 안내 메일 발송, 현장 방문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장비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 구축을 위해 도내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사무소 개소 자산운용사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연금공단, 간담회 가져… 김성주 이사장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국내외 자산운용사들과 처음으로 공식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오전 11시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전주에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오전 11시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전주에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김성주 이사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만남으로, 지역에 진출한 자산운용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러셀 인베스트먼트, 비엔와이엠론, 블랙스톤, 이시스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티시먼스파이어, 핼코, 프랭클린템플턴, 하인즈 등 국내외의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해 의견을 나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국민연금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했다. 다만 “더 많은 자산운용사가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과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 기업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국내외 운용사들이 전주에 기반을 두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전주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제조사 민간대행자 모집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적제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군·구, 635개 사업지구에서 약 17만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병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지적제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대행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제조사 책임수행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 수행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적제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핵심 사업이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신제품 신속 보급

농촌진흥청이 해마다 개발하는 식량작물 신제품을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신속히 보급하며 외래 품종과 오래된 품종 대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이는 약 473헥타르 규모의 재배면적에 해당한다.

농촌진흥청은 김포시와 협력해 ‘한가득’을 지역 대표 품종으로 선정하고 재배면적을 2023년 0.6헥타르에서 2025년 165헥타르까지 확대했다. 오는 2029년에는 1,500헥타르로 늘려 외래 품종 대체에 적합한 품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고 품양이병에 강해 품비인 수확이 가능한 수수 품종 ‘누리할’ 등이 현장에 보급되며 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공용 감자 ‘뽕돌볼’과 재배 안정성이 높은 호박고구마 ‘호풍미’ 등 수량과 품질

이 우수한 신제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밥쌀용·특수미 벼를 비롯해 콩, 고구마, 감자 등 40여 개 식량작물 품종이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 품종과 수량은 1월 19일부터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에 공개되며,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1월 30일까지 ‘신제품 종자 분양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종자는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보급사업이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SFP)을 추진하거나 품종 비교 전시포·자체 증식포를 운영하는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관 적금’ 출시

전북은행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 적금 상품을 선보인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는 3월 31일까지 ‘26년 달리란 말이야 특관 적금’을 한정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객의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중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 연 3.10%의 금리를 제공한다. 월 납입금액은 계좌당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총 판매 한도는 1만 좌로,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기본 금리는 6개월 연 2.60%, 12개월 연 2.80%, 24개월 연 2.70%이며, 12개월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를 포함해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